

첨단설비로 허실을 잡아라

(주)코하트(대표이사 김정균)는 1983년 창업된 이래 기계, 공구 및 축산기자재 무역에 있어 전문 기계, 공구, 축산기자재 무역업체로서 새로운 기업 이미지와 환경친화적인 환기(Arrotech ventilation fans), 쿨링(Munters CELdek cooling pad), 포깅(Lurmark fogging system), 자동급이(VDL auto feeding), 급수(IMPEX water nipple) 시스템 및 기계류를 양계산업 시대 흐름에 맞는 제품군을 수입·공급하면서 축산분야에서 자리매김해오고 있는 기업이다.

(주)코하트무역은 세계에게 품질의 우수성이 검증된 제품만을 고집하며 제품은 모방할 수 있어도 기술은 모방할 수 없기에 최고의 기술, 최고의 품질만을 엄선하여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김정균 대표와의 인터뷰를 통해 텀키 하우징시스템을 비롯한 첨단화된 기자재의 중요성에 대해 들어보았다.

텀키 프로젝트를 향해

김정균 대표는 기자재 사업에 뛰어들던 당시부터 고객들과 많은 거래를 통해 축산기자재 분야의 영역에서 기반을 다지면서 코하트 무역으로 첫 사업을 도전하게 되었다. 김 대표는 24~35년 전부터 기자재 업계에 몸을 담아온



▲ (주)코하트무역 김정균 대표

노하우를 현장에서 익히며 전문성을 하나하나씩 쌓아왔으며 이를 발판으로 사업영역을 점점 확대해 나가고 있다.

코하트는 환기제어분야 사업을 시발점으로 하여 친환경분야까지 넓혀가면서 자동화의 완성단계인 터키하우징시스템을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터키 프로젝트는 총괄적인 계사 관리체계로써 건축하우징에서부터 케이지, 급이기, 환기 등 전부분에 걸쳐 체계성을 확립해가며 자동화의 완성단계를 최종목표로 하고 있다.

코하트는 오랜 기간 고객에게 우수한 제품을 공급하고자 노력해온 결과 다수의 농장들에게 가격경쟁력은 물론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제품들을 고객에게 제공하며 3년 사이 100여개 농장에 설치하는 결실을 보았으며 제품에 대한 평가도 우수하다는 정평이다.

시행착오와 실용화 과정의 결실

우수 제품을 발굴하기 위해 유럽, 미국 등 다수의 외국을 방문하면서 경험했던 선진축산업을 보며 국내에 도입하려고 부단히 노력해 왔다. 외국의 경우 계절을 초월한 사육방식을 채택하다보니 성적이 날로 향상되어질 수 있었다. 이로 인해 농장은 직접적인 이익이 증대하는 효과를 보게 되면서 국내 농가들에게도 이러한 기술을 도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내 기후를 볼 때 연교차가 심할 뿐 아니라 일교차 또한 외국에 비해 큰 차이가 나면서 지난 15년 동안 국내 환경에 맞게 도입하고자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오면서 실용화 과정을 거쳐야만 했다.

김정균 대표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건축과 환기 분야에도 주의를 기울이며 최근 6~7년 사이 쿨링패드, 단열재 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지금은 어느 누가 와서도 인정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기술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러한 우수한 시스템들을 농장에 접목하면서 그만큼의 우수한 성적으로 이어지게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고 그 결과 기대에 부흥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성공은 모방이 아닌 축적된 기술에 있다

김 대표는 “과거에는 유창계사는 자연환기에서 영농을 해오던 시기가 주류였던 반면 지금은 강제 환기 방식으로 노동집약적인 영농체제로 생산성이 향상되어 간다.”고 말하며, “전문화되고 조직적인 집단을 구성하여 대량의 규모화를 거쳐 막대한 경영의 이익을 축적하려는 경향이 뚜렷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전하며 이에 따른 기반으로 선진 기자재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실제로 보령축산의 윤성희 대표, 도원농장의 최성갑 대표, 독바위농장의 윤정로 대표 등을 선진 기자재 도입의 성공사례로 들면서 “이 분들의 경우 투자를 망설일 때 미래에 대한 식견을 가지고 우수 기자재의 도입에 과감히 투자하면서 우수한 성적의 결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한다. 또한 성공한 농장들을 보면 그동안에 실용화를 위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체계를 하나하나 잡아갔기에 가능했다는 것이 김 대표의 말이다. 단순히 모방만 하는 사람들은 우수한 기자재를 도입하고도 실패한 것은 오랫동안 축적된 기술을 따라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기술이란 아무리 자신의 사육능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쉽게 모방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동사와 같이 오랜 경험이 축적을 통해 농가와의 끊임없는 컨설팅을 통해 만들어 내는 결과물임을 농가들이 인지해야 함을 전했다.



▲ 회사 내에 있는 기자재 전시관

변화를 통한 미래설계

김 대표는 시설설치 경향을 보면 양계를 해온 농가들은 자기가 관리하던 시스템을 바로 탈피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또한 최근에 무창계사가 많이 도입되는 것은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성 없이 단지 지금까지도 유창으로 잘해왔거나 무창을 해온 농가가 많은 수익을 냈다하여 따라가기 식의 도미노 현상은 결코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래지향적인 시야를 가져야 앞으로 치열해지는 양계업체에도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서는 타인이 성공했다는 말만을 듣고 모방하는데 그치지 말고 어떠한 기술에 의해서 체계를 갖추었나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외국의 경우 자신이 기술이 부족할 때는 자문을 전문 컨설팅업체에 의뢰하고 농장마다의 하우징 시스템의 분석을 받고 비용을 지불한다고 한다. 어렵게 습득한 지식을 남에게 무상으로 주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술이 없을 때에는 외국에 자문을 의뢰해야 하지만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하우징 시스템을 기초로 대가를 지불하고 전문적인컨설팅을 의뢰하는 양계농가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함을 전하며 기술이전의 대가를 지불한다는 가치인식이 국내에도 확립되어 보다 전문화된 컨설팅이 이루어지길 희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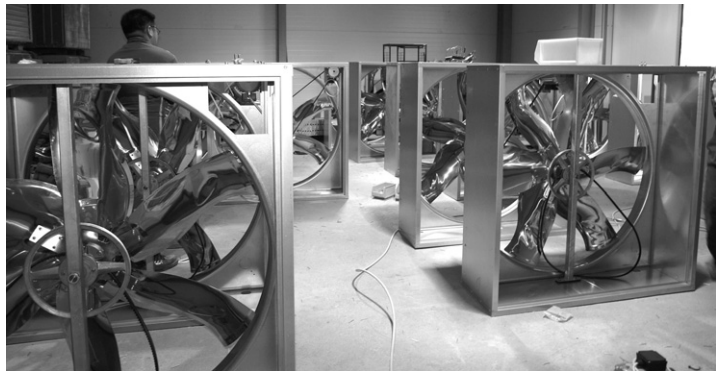
첨단으로 허실을 잡아라

우리나라 양계산업 발전이 있기 위해서는 시설기자재도 첨단화되어야 하겠지만, 나아가 이에 따른 제 시된 수칙에 따라 발생하는 허실에 민감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한다.

외국의 경우 사료요구율을 1.5까지 도달시켜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허실이 많이 존재하여 외국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평균생산지수를 보아도 300대 넘는 농장들도 외국과 비교해도 비중이 낮은 게 사실이라며 국내에는 아직까지 많은 허실이 있음을 지적했다. 물론 농장주와 지역을 담당하는 지역소장의 영향도 있지만 가장 기초가 될 수 있는 첨단 기자재 도입으로 세부적인 관리를 강화하고 정확하

게 제시된 수치를 체크하여 그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져야 생산성 향상은 물론 경쟁력 증대까지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하며 첨단 기자재를 통해 나온 수치에 민감하게 대처하여 허실을 간파하고 잡아가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메인시스템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농장들을 그렇지 못한 농장과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한다.



▲ 자체 조립 생산되고 있는 휠

그 예로 계사내 이상이 발생하는 사료와 음수에서 바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때 첨단 기자재는 정확한 측정으로 양축가는 신속하게 알 수 있고 이를 체크하여 생산성 저하를 사전에 최소화 시킬 수 있다. 온도편차가 크게 벌어지는 시기에는 사료의 허실의 발생도 커지며 에너지 소모도 많아진다. 결국 이러한 문제점을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농장경영을 향상시킬 수 있다.

부화장의 경우에서도 첨단 시설의 의한 부화기 시설의 효율성 또한 기존 방법과 견주어 볼 때 허실을 줄일 수 있다. 난좌에 종란을 일일이 담아 부화기에 직접 넣을 때 질병전이의 가능성 상존, 종란의 기공이 탐에 의해 부화과정에서 문제점 발생시키며, 파손 등 손실이 7~8% 발생되었다면 기계의 의해서 이를 손실을 줄이게 되며 기자재 구입비를 뛰어 넘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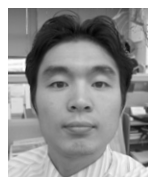
또 하나의 시작 (주)아그로텍

김 대표는 20년이상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이윤창출을 위해 양축가와 함께 고민하며 최고만을 엄선하여 고객에게 공급해 오고 있다.

코하트에서는 기자재를 선택하여 들여올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세계적으로 검증된 제품만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만큼 전세계적으로 그 성능을 인정받고 제품만을 공급하여 국내 농가들도 신뢰감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데 역점을 두고 공급해 오고 있다.

김정균 대표는 또 하나의 시작인 (주)아그로텍 제조회사를 설립하며 한 단계 더 높이 도약을 꿈꾸고 있다. 코하트 자체는 무역법인이기 때문에 제조등록법인을 만들어서 조립생산체제를 구축할 계획을 진행중에 있다. 이미 공장등록을 끝마친 상태이며 400평단위 4동을 공사 중에 있다. 정상적으로 공장이 가동되면 본격적인 조립제품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내제품도 기술 향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어 동사에서는 일부 핵심부품과 기술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외의 부품은 국내에서 제조하여 조립하는 하는 체제를 구축해가고 있다. 이러한 제품군들을 막대한 연구비를 절감효과와 우수한 제품을 국내에서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최근 들어서는 국내에 많은 GP농장에 이와 같은 제품군을 도입되고 있으며 앞으로 공장이 완공되는 시점부터 대량생산체제로 대수판매뿐만 아니라 세계시장 수출도 계획중에 있어 앞으로 코하트가 축산 전문 기자재업체로서 한 단계 더 발전된 모습을 기대해 본다.



취재 | 김영훈 기자
theme6017@hanmail.net